

※칼럼 내용은 본 신문의 論調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데스크



진시현 기업팀장

공은 둥글고 경기는 90분이나 계속된다. 독일의 축구선수이자 감독인 제프 헤이베이거가 남긴 말이다. 전범 국가인 독일은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당하다 10년 만에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다. 당시 독일의 선전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들조차 패전의 그늘에 휩싸여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독일 대표팀은 절치부심하며 결승전까지 오른다. 결승전 상대는 막강 최강 팀인 헝가리. 헤이베이거 독일팀 감독은 결승전을 앞두고 절대열세를 점치는 기자들에게 축구를 대표적 명언을 남긴다. 공은 둥글고 경기는 90분이나 계속된다. 독일팀은 모두의 예상대로 경기 초반 헝가리에 2점을 내줬지만 2점을 만회한 뒤 후반 역전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독일 국민들은 이 경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고 한다. 이날의 경기는 결승전이 열린 스위스 베른에서 착안해 '베른의 기적'이라 불리고 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은 우리나라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단 한 장뿐인 아

공은 둥글다

시아지역 출전권을 획득하고 월드컵 본선무대에 처음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를 불과 10여 시간 앞두고 스위스에 도착했다. 직항이 없어 48시간동안이나 비행기를 타며 이동했기 때문에 극심한 피로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선수 유니폼에는 등번호조차 없었다고 하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헝가리와 0대 9, 터키와 0대 7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됐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연속 9번째 본선에 진출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는 4강의 신화를 이뤄냈다. 스포츠는 승리하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이 포함된 말 그대로 '죽음의 조'에 속했다. 한국이 이들 3개국에 비해 전력에서 열세라는 건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그런데도 막상 뚜껑이 열리자 국민들은 마치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승리를 요구한다. 한국 대표팀이 1차전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도 패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정 선수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글이 쇄도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국민이자, 한류라는 자산을 가진 문화선진국 국민이지만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인격적인 모습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를 받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국가대표팀 선수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공은 둥글고 경기는 90분이나 계속되기 때문이다.

금요일 아침



박영찬 다들코리아대표

기업에 있어 올바른 회의문화는 조직을 끌어가는 중요한 아이디어창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생산적인 회의문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리더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모든 사람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는 발언권을 동등하게 배분하여 모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발언에 대해 좋게 평가를 하라. 모든 발언 신청을 순서대로 메모해서 신청 순으로 발언권을 준다. 참석자들 중에는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참석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내면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리더는 처음부터 서로의 아이디어를 인정해서 참여를 북돋아주는 열정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행여 깎아내리거나 경멸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반응은 자제해야 한다. 참여자의 입을 막아버려 좋은 아이디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 사람의 발언이 끝나면, 그 내용이 별로 신통하지 못하다더라 "○○님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라고 그 발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준다. 회의에 참여하는 데도가 소극적이거나 발언

좋은 의견을 나오게 만드는 법

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명해 "○○님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야에 있어 많은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언이 끝나면 "역시 조심히 집중하시면서 업무에 열정적으로 전념하시다니 그동안 많은 연구결과가 있었군요. 앞으로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하며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 2)발언을 명확하게 만들어라. 리더는 필요한 경우 참여자의 발언내용을 설명하거나, 요약하거나,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된다. 참석자들은 종종 두서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다. 회의를 원활히 끌고 나가려면 두서없는 얘기들은 가급적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잘 적용하기 힘든 경우엔 "좋은 아이디어군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한 다음 단점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좀 더 명확해지거나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하는 식으로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칭찬한다. 또한 발언내용이 주제와 동떨어진 것일 때에는 기분이 상하지 않게 이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알려주면서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한 사람의 의견이 발표될 때 마다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유도하여 토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그러나 사안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되 인신공격은 절대로 허용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명심하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의견을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잠시 멈추게 하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했던 얘기를 먼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 의견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3)정리하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하라. 어느 정도 토론이 마무리되면 결론을 모색할 때쯤이면 모든 발언들을 연결시켜 서로 연계되게 하면서 요점정리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회의에서 만장일치만큼 위험한 게 없다. GM 창업자인 슬론 회장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의 경우에는 실행을 미뤘다고 한다. 만장일치라는 의미 속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다수 귀찮고 관심 없고 그저 남들의 의견을 따라 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만장일치만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며 코멘트 해보는 건 어떨까? 오늘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맡겨져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할 것인지 각인시켜준다. 회의의 목적에 대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회의의 클로징 멘트에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회의에 집중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조직의 회의문화는 그 기업의 미래이자 현재이다. 좋은 분위기 속에 생산적결과가 나올 수 있는 회의 문화가 훌륭한 기업을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기자의 눈



김병일 기자 kube@

최근 중전선업체 코스모링크가 선진국 수준의 고내화케이블을 새롭게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830℃에서 최대 120분 동안 가열하는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비 붕괴 등을 가장한 타격 상황에도 버티야 하는 IEC 국제규격을 만족시킨다. 나아가 보다 높은 온도 환경(950℃)과 타격 조건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 작업이 있을 경우 까지 상정한 '분무' 상황이 더해져도 제품의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영국국가규격(BS)까지 충족시킨다. 겨우 '750℃에서 90분' 견디야

하는 국내 성능 기준을 월등히 넘어선다. 내화케이블은 소방용 전원과 연결돼, 화재 시 소방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내화전선에 문제가 생기면,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대피 유도등 등 소방방재시설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어, 인명·재산 피해가 보다 확산될 수 있다.

'안전 후진국' 대한민국

때문에 보다 안전한 제품이 개발되고,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반면, 국내 규격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입맛이 쓰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화케이블과 같은 안전 관련 기자재의 성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EU와 인근 중동 국가, 호주·뉴질랜드 등은 국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내화케

이블 규격을 강화해둔 상태다. 이는 단순 시장 논리를 통한 접근으로는 결코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터다. 실제로 코스모링크 외에 LS전선·가온전선 등에서도 고내화케이블이 나와 있지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내화전선만이 팔리고 있다. 코스모링크도 신제품을 내놨지만, 당장 시장에서 팔릴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결국 안전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제천, 밀양 사고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세종시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정부는 국가적인 화재안전 확보대책을 세웠다고 홍보해 왔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안전과 관련해서 여전히 후진국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터다. 규제 완화가 뭐니 하는데, 선진국들은 국민 안전에 앞서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전기신문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3회) 등록 서울, 가50118
사장실 (02) 2168-1301-2, 부사장실 (02) 2168-1303-4, 편집팀 (02) 2168-1312-5, 산업팀 (02) 2168-1330-4, 디지털뉴스팀 (02) 2168-1340-2
광고매체팀 (02) 2168-1351-7, 경영지원팀 (02) 2168-1306-8, 사업팀 (02) 2168-1360-1
본사 외국계회사, 중국전원보(중국), 베트남전원보(베트남), 전자(일본), 몽골 E&N 자립

The Electrical Works 월간 전기맛비 6 June 2018
[스페셜스토리] 남북 경험...전력업계 훈풍 부나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해 전력 인프라 조성 필수
다양한 시나리오 맞춰 전력업계 대비 나서야
전기인 최대 축제 '2018 전기공사 엑스포' 성료
한국전기공사협회 주최, 종합우승 인천시회에 돌아가
오송에 국내 최초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중
차량·용품의 체계적 성능검증 가능...경쟁력 향상 기대
송북 오송에 국내 철도산업의 새 역사가 쓰이고 있다.
철도 차량이나 용품 등의 체계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기반시설인 '철도종합시험선로'가 국내 최초로 건설 중인 것.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지난 2014년 철도종합시험선로 12,000km 구축을 시작했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2411억원이 투입되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업은 GS건설전주사업이, 감리는 세콤기술이 맡았다. 현재 전체 증명률은 70%에 달한다.
"조직의 미래는 근무환경과 구성원 역량에 달려"
반극동 코레일테크 사장
자타 공인하는 대전·충남 대표 시공기업 제일전력
정기구독·광고문의 : 02_2168_1300

The Lighting 6 June 2018
LED램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 60일 연장 기보니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긍정적 효과 기대
불필요한 시험인증비용 절감 목소리 높아
에너지소비효율제 시행에 대한 소비자 인식 매우 저조
조명산업의 미래와 비전 '인눈에'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준계약술대회
산·학·연 전문가 500여명 참석...뜨거운 관심속 성료
146편 논문 발표, 다양한 주제의 특별세션·워크숍 풍성
'태양의 도시, 서울' 실현 위한 종합계획 추진
최윤식 SH 시설관리처장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상위 0.1% 눈높이에 맞춘 하이엔드 주거공간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 제공으로 국내외 부호들 관심 높아
'라이프웨이메이트 디밍시스템'으로 인기몰이 진우씨시스템
에이펙스인텍
시장 인지도 높은 LED 조명업계 강자
"난 오홀도 클을 쓴다" 윤흥원 세종전무
정기구독·광고문의 : 02_2168_1357